

제152주년

地日기념

포덕 156(2015)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식전축하 행사

10:30~10:55

- 1. 식전 축하 행사 (천도교 연합 합창단)
- 1. 내빈 소개 및 식장 안내

기념식

11:00~11:50

- 1. 개식
- 1. 청수봉전
- 1. 심고
- 1. 주문3회병송
- 1. 경전봉독_ 천지부모
- 1. 천덕송 합창_ 기념송 1~3
- 1. 기념사_ 교령 박남수
- 1. 포상
- 1. 천덕송 합창_ 지일기념가 1~3
- 1. 심고, 폐식

특별강연

11:50~12:30

통일부 황부기 차관

주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광복
분단 **70th**
남북천도교인49일특별기도

목적 : 남북 통일과 민족 화합을 위한 심화기화

기간 : 포덕 156. 7.13 ~ 8. 30

장소 : 전국 수도원, 전국 교구, 자택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해월신사께서 수운대신사의 도통을 이어 천도교 제2세 교조가 되신 제152주년 지 일기념일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맞이합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무극대도를 창도하신 지 만 3년 만에, 그리고 도를 펴신 신유년(1861) 6월로부터 불과 2년 만인 계해년(1863)년 8월 14일, 해월신사님께 도통을 전수 하셨습니다. 이는 수운대신사께서 천도 운행의 이치에 따라 때를 알고 때를 쓰는 지혜 [用時用活]를 발휘하신 것이니, 무릇 도의 바른 길은 때와 짝하여 나아가는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 2세 교조가 되신 일은 후천 개벽의 역사에 새 전기를 마련하는 일 대 사건입니다. 수운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는 득도, 즉 동학 창도는 우주적 사건으로서 후천개벽의 출발점이라면, 수운대신사로부터 해월신사로 도통이 전수되는 과정은 후천개벽을 펼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한 번 매듭을 짓는 사건으로 동학 창도를 완성하는 매듭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당하여 수운대신사께

서는 '사시의 차례에 성공한 자는 가는 법'이라는 시를 당당히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해월신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염념불방하며, 수도와 연성에 정진하고 계시는 천도교인 여러분!

우리는 수운대신사 순도 이후 해월신사께서 겪은 도피와 주유의 일생을 고난과 좌절의 연속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월신사의 신앙 일생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152주년 지일기념 이후 해월신사의 생애를 밝게 이해하고, 해월신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성공했다는 자부심과 시천주를 실천한 기쁨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 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운수를 타고 이때를 쓰는 것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때를 알고 때와 짝하여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릇 때를 알고 때를 쓰는 것을 스승님들의 행적에 비추어 말하자면, 수운대신사께서 도를 깨달아 받으신 날로부터 도통을 해월신사에게 전수하시고, 또 갑자년(1860) 3월에 천명을 순히 받으신 것이 모두 한 이치로 꿰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월신사께서 도통을 전수한 이래 36년간 도를 펴시고 무술년(1898)년 6월, 도를 위하여 순도하신 것 또한 용시용활의 이치를 한 치도 놓치지 않고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의암성사, 춘암상사의 도통 전수나 천도교 대고천하의 계기 역시 운수의 흐름을 읽고 인심의 갈래를 살펴 용시용활한 결과입니다.

경상에서 시형으로 이름을 바꾸신 해월신사의 가르침과 이치를 염념불망하면서 교단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시대와 짝할 수 있도록 정성과 공경을 다 한 것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서는 '갑오년과

같은 때를 맞이하여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 도의 운수가 이로 말미암아 좋아지리라' 하신 말씀을 실행코자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는 이치를 뿔속 깊이 절감하는 때를 맞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모든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선포식을 가졌고, 중국에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의 기치 아래 도서관을 지어주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도서들을 기증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중원포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단 내부로는 우선 기관도통의 출발점이라고 할 교역자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수 과정을 운용하여, 교역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 교화와 행정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천도교의 취약 부문으로 사회공헌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복지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유무상자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모심과 살림의 복지사업을 추진할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경전의 내용을 시대에 맞도록 설교할 수 있는 예화집의 재간행과 각종 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한 제도적인 정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지와 사적지를 성역화하고 국민 전체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 시대의 천도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자 애쓴 것은 모두 지금 우리에게 천운과 천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15일에는 전국의 통일 단체들이 천도교중앙대교당과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6.15공동선언 15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시기에, 6.15 기념행사 장소를 천도교 중앙대교당으로 결정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 이곳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민족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 점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큰 위기에 처한 지구 전체의 갈등 상황과 분열의 사회상을 타파할 새로운 문명시대의 개창을 위해서는 동학의 시천주와 사인여천 자연·사회 윤리와 경천, 경인, 경물 삼경사상의 정치·경제적 의의, 그리고 대인접물, 이천식천의 철학·문화 원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울님이 뜻을 두면 금수 같은 세상 사람도 얼푼이 알아낸다.’는 바로 그 이치와 기운이 작용하는 결과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현묘한 계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광복과 분단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일입니다. 역사의 갈피를 살펴보면 광복은 기미년(1919)의 3.1운동으로부터 비롯되는 내적인 계기가 외부 환경을 계기로 현실화된 것이며, 분단은 냉전의 외적인 동력이 내부의 갈등 요인들을 부추겨 비롯된 부자연스러운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나간 100년 역사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남북통일의 평화로운 기운을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과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3.1운동이란 일찍이 해월신사께서 도의 장래를 예견하신 바, ‘나 죽은 뒤 10년 후에 장안에 주문 소리가 진동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고, 서울 한복판에 중앙대교당을 건설하는 일을 매개로 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갑오년의 동학농민혁명이 낡

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갈아뿔을 예고하는 근대적 개혁 운동의 출발점이라면, 기미년의 3.1운동은 새로운 시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으로 해야 할 정신적 기반과 문화적 기틀을 제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까지의 시간은 개혁의 열차가 달려오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찾아내고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다시 한 번 후천 개혁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지난 3.1운동처럼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민족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밝고 참된 세상을 꿈꾸는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해, 한해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100년 중일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야말로 해월신사의 용시용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이미 북녘의 천도교인들에게도 우리의 이러한 진심을 담아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직된 정세 속에서도 최선의 일정과 경로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일은 안으로 천도교인들의 성심을 근본으로 하고, 밖으로 종교와 사상, 이념과 계층을 망라한 전체 시민과 더불어 해 나가야 하는 일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조직과 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든 한울님이 뜻을 둔 사업이 정도를 걸어 '너를 만나 성공'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도교인들의 수도 연성이 기본입니다. 해월신사님이 교단이 고비에 처할 때마다 49일 기도로서 새 지평을 열었던 역사와, 의암성사님이 봉황각에서 펼친 49일 기도로 3.1운동이라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마련하신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도교인 여러분! 광복 이후 우리는 70년 동안 전 세계의 격찬을 받는 경제 성장과 정치발전, 그리고 한류로 대표하는 문화적인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던 순간에, 혹은 평화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순간도 있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끼게 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분단에 따른 낡은 이념과 갈등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발전과 영광이 우리 노력의 결과라면 아픔과 좌절은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사의 낡은 허물을 벗어 던지는 것임을 수운대신사와 해월신사께서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152주년을 맞이하는 지일기념일은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하신 바로 그대로, 낡은 시대를 떠나보내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중대한 기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다시 한 번 오늘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경축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6년(2015) 8월 14일

교령 박남수 心告

천지부모(天地父母)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 포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포태의 이치와 기운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울과 땅이 덮고 실었으니 덕이 아니고 무엇이며, 해와 달이 비치었으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만물이 화해 났으니 천지 이기의 조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천지는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님이란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와 이제를 살펴 보면 인사의 할 바니라」 하셨으니,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은 옛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일이요 수운대선생님께서 비로소 창명하신 큰 도이니라. 지극한 덕이 아니면 누가 능히 알겠는가. 천지가 그 부모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 오만년이 지나도록 오래 되었으니, 다 천지가 부모임을 알지 못하면 억조창생이 누가 능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도로써 공경스럽게 천지를 받들 것인가.

천지부모를 같이 모셔 잊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하며 얽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이니라. 그 아들과 딸된 자가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하고 삼가하라.

내가 부모 섬기는 이치를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려 억지로 할 것인가. 도무지 이것은 큰 운이 밝아지지 못한 까닭이요 부지런히 힘써서 착한데 이르지 못한 탓이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요 곡식은 오행의 으뜸가는 기운이니, 젖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곡식이요, 곡식이란 것은 천지의 젖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은 또한 천지의 젖이니라. 어려서 먹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다 이것이 천지의 녹이니라.

사람이 천지의 녹인줄을 알면 반드시 식고(食告)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어머니의 젖으로 자란 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 봉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니라. 식고는 반포의 이치요 은덕을 갚는 도리이니,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어찌 홀로 사람만이 입고 사람만이 먹겠는가. 해도 역시 입고 입고 달도 역시 먹고 먹느니라.

사람은 한울을 떠날 수 없고 한울은 사람을 떠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한 호흡, 한 동정, 한 의식도 이는 서로 화하는 기틀이니라.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데 있느니라.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그 생성을 돕고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여 그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굴신과 의식은 다 한울님 조화의 힘이니, 한울님과 사람이 서로 화하는 기틀은 잠깐이라도 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자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지일 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
 2. 팔 월 십 사 일 -
 3. 팔 월 십 사 일 -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을 - 라 서 -
 2. 도 통 이 어 반 서 어 -
 3. 이 어 반 - 은 날 -



1. 어 든 세 - 상 명 랑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건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원 -히 찬 연 토 다
 2. 영 -- 원 -히 찬 연 토 다
 3. 영 -- 원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보 - 아 라 휘 날 리 는

궁 을 깃 - 발 을 -

이 - 땅 위 - 에 궁 을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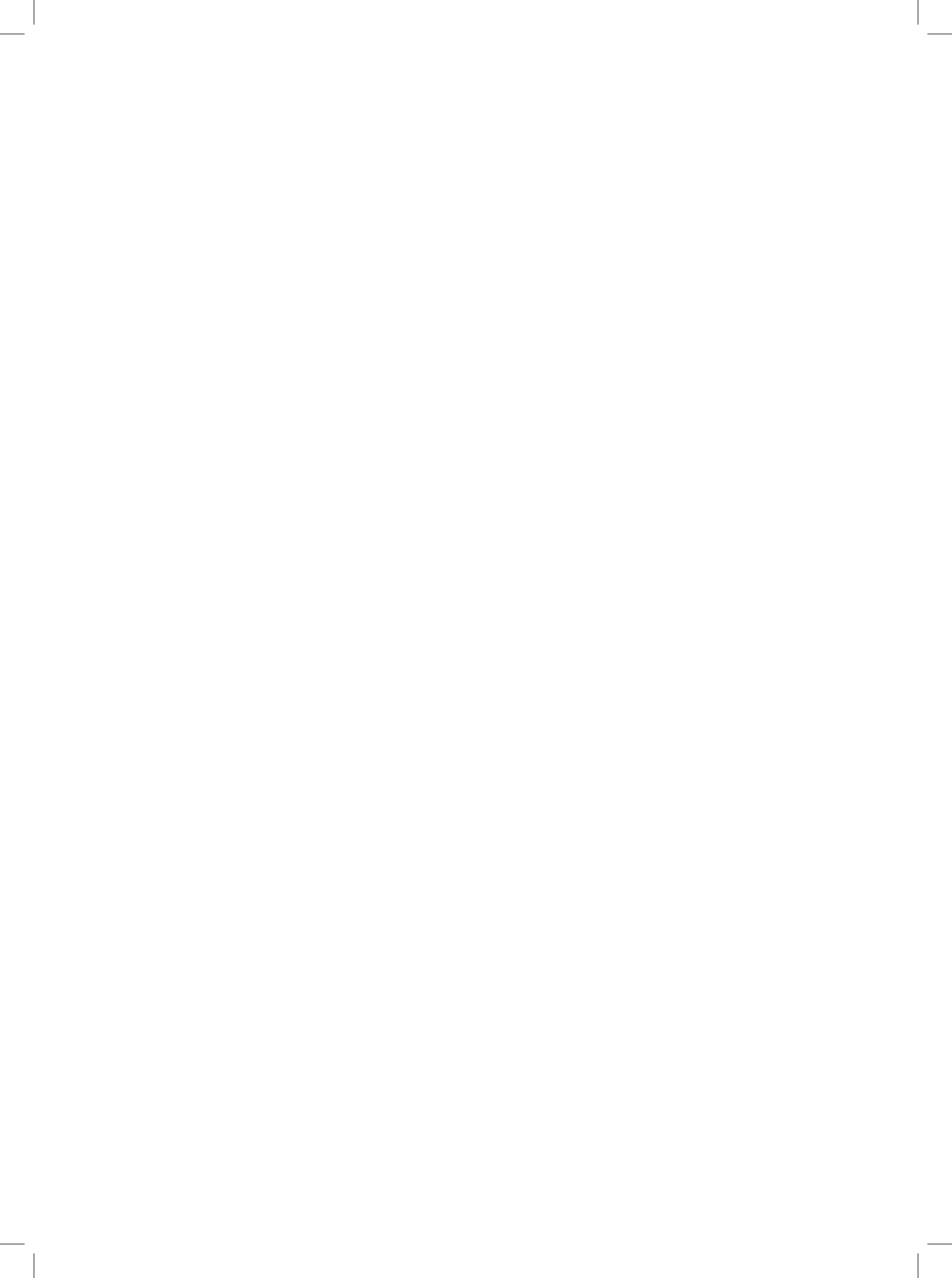
피 위 를 - 보 세 -

해월신사 약력

- 포덕전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본관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초명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동학에 입도하시다.
- 포덕 4년(1863) 7월, 대신사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으신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시다.
-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8년(1865)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12년(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 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13년(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시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샘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시다.

- 포덕 24년(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1,000부를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오늘의 삼권분립과 유사한 조직체인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26년(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31년(1890) 11월, 금릉군 북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시다.
- 포덕 32년(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시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 3월, 보은 장내리에서 3만명이 모여 대대적으로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옥천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혁명이 좌절.
- 포덕 38년(1897)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 포덕 39년(1898)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께 전수하시다.
4월 5일,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헌에게 체포되시다.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Tel. 02-732-3956 / Fax. 02-739-4533

www.chondogyo.or.kr